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07

## 다양성의 가치로 풀어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41

##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박동우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교수, 무대미술가





## 노 정 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학계나 언론,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의 사진을 보며 참가자 구성을 살펴 보는 버릇이 생긴지 꽤 되었다. 일렬로 죽 늘어선 사진 속 참가자들이나 포스터의 연사들이 전부 남성일 경우가 여전히 꽤나 많고, 그런 사진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주관하는 국제정치 콘퍼런스에 여성 연구자들이 초청되지 않는 현상을 거론한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의 신문 칼럼이 생각난다. 그는 초청할 만한 국내외 여성 전문가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우리나라에 편만한 남성위주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신랄하게 지적한 바 있다.<sup>1)</sup> 최근에도 정부나 지자체 행사에서 남성일색으로 연사를 구성하여 지적 받는 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sup>2)</sup> ‘그게 무슨 문제인가, 전문가들이

1) 빅터 차 (2017.09.08). 남성학자 일색의 한반도 학술회의. <중앙일보>.

2) 하선영 (2020.11.03). 정부 행사에 '여성 연사 0명'... '정부만' 모르는女전문가. <중앙일보>.

모두 남성이어서 그런 건데'라는 주최측의 불멘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술행사나 전문가 포럼의 경우, 주최측이 '여성'전문가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노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020년 노벨상 위원회는 과학분야에서 3명의 여성 수상자를 발탁하였다.<sup>3)</sup>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발견한 공로로 안드레아 게즈에게 물리학상이, 유전자 염기서열을 편집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찾아낸 공로로 엠마누엘 샤파티에와 제니퍼 다우드나에게 화학상이 수여되었다. 거기에 더해 문학상도 미국의 시인인 루이제 글뤽에게 주어졌다. 여성 수상자가 희귀했던 노벨상의 문화가 근래에 들어 바뀌기 시작하며, 여성 과학자들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반가운 이유는 여러가지다. 먼저, 여자들은 수학이나 과학을 못 한다는 오래된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실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이러한 편견 속에서 진로를 찾아가는 여학생들이 이들 수상자를 보고, 자신들도 최고 수준의 과학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할 수

---

3) 노벨상 공식 홈페이지, [www.nobelprize.org](http://www.nobelprize.org)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과학이나 발명에 약하다는 편견은 워낙 뿌리가 깊어, 드러난 성취와 업적의 기여도를 따질 때 여성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빈번해 왔다. 여성은 남성 리더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전통적인 사회관이 팽배한 상황에서, 여성의 공로는 마땅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묻히게 마련이다. 상사나 스승, 또는 동료와의 공동연구에서 업적의 공로는 당연히 남성 동료나 상사에게 돌려져 왔다. 공동연구에서 여성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편견은 19세기 미국의 발명가이자 여성 참정권 운동가였던 마틸다 게이지의 이름을 빌려 '마틸다 효과'라 불리기도 한다.<sup>4)</sup> 최근 노벨상의 변화를 보며 마틸다 효과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 바람이 크다. 학술 행사나 전문가 포럼의 연사에서 과학상 수상자에 이르기까지, 성별과 인종, 연령과 스타일이 다른 다양한 얼굴들이 어우러져 전면에 나서는 행사가 멋진 행사라는 판단을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기를 바라며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4) [https://en.wikipedia.org/wiki/Matilda\\_effect](https://en.wikipedia.org/wiki/Matilda_effect)

## 서울대 다양성위원회의 경험과 이슈

2019년 고려대에 다양성위원회가 생겼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아마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사람들일 것이다. 고려대는 서울대와는 다른 궤적을 통해 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교수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성 가치를 구현하는 학내 기구를 만들고 변화를 추구하는 신기한 현상이 여러 대학으로 퍼져 갈 수 있음을 보여준 확실한 사례였다. 서울대학교의 다양성위원회는 여교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2015년 여교수회 회장이던 내게 전임 회장단이 정책과제 보고서 하나를 넘겨주었다.<sup>5)</sup> 보고서 저자들은 15-20년 전 서울대의 학부 여학생 비율을 현재의 여교수 비율과 비교하고, 여교수들의 임용이 가용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학교가 여교수 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대학들이 양성평등의

5) 홍기선 외 6인 (2014). 서울대학교의 양성평등추진정책의 검토와 발전방향제시. <서울대학교 여교수회 2014 정책과제 연구결과보고서>.

문제를 다양성과 공정성의 가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서울대도 다양성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여교수회는 당시 성낙인 총장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킬 기구의 설립을 요청하였고,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학칙에 근거한 최초의 총장직속 자문기구로 다양성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들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과 교수협의회 회장, 여교수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외국인교수와 학생, 직원,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다. 처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양성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학내행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각 단과대학마다 부학과장과 직원 한 사람씩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위원회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자신의 연구 분야가 다양성과 연관되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다양성 지도교수단도 위원회와 연결되어 있다.

다양성위원회는 다양성보호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정책개발, 다양성 관련 현황과 개선 실적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간, 다양성 가치의 소통과 확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중 다양성 보고서의 발간은 그동안 학교 공식통계에서 벗어나 있던,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았던” (가려졌던) 영역의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구성원들을 성별의 관점에서 조망해보는 차원과 함께, 국적, 직위, 직무의 종류와 안정성, 출신학교, 장

애여부 등 여러 차원에서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 덕분에 내 개인적으로는 여교수와 여학생 집단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의 폭이 비전임 교수들과 연구원들,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연구생들, 한국에 정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들,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로 점차 확대되는 개안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캠퍼스생태계, 연구생태계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들이며 상대적으로 과소대표된(under-represented) 집단이자 개인들이다.

자신들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라서 자신들의 의견이 경청 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개개인의 능력도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미래를 열어가갈 인재를 길러내고 창조적인 연구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학의 목표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함께 협업할 때만이 달성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대학의 생태계에서 과소대표된 집단들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그 많던 여학생들은 다 어디로;  
가파른 경력사다리

우리 사회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져서 이제는 양성평등이 거의 달성되고,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드러내고 말은 못하더라도 '우는 암탉'에 대한 못마땅함과 걱정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엔 여전히 많은 것 같다. 여학생이 반장을 맡거나, 그룹 활동의 리더가 되는 것이 초중등학교에서는 이제 이상할 것이 없는 현상이 되었지만, 사회의 여러 직책에서 성인 여성이 리더가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낯설고 특별한 주목을 받는다. 여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궤적은 전 세계 중진국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험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EU와 OECD의 통계를 모아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에서 우리나라는 OECD 29개국 중 8년간 연거푸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바로 위로 일본과 터키가 있고,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진 스위스가 우리보다는

큰 점수차로 그 위에 자리잡고 있다.<sup>6)</sup>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남녀 간의 임금 차이가 35%로 가장 심하고 (일본은 25%),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59%밖에 되지 않으며 (남성은 79%), 상장기업 임원의 2%만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 국가들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통계지표들이 우리나라의 성별 간 불평등한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예전보다 나아졌으니, 문제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는 판단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기분적 느낌일 뿐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수면위로 크게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젊은 여성들의 자살이 증가하는 문제이다.<sup>7)</sup> 중앙대 장숙량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30대인 80년대생과 20대인 90년대생 여성들은 그들의 엄마 세대인 50년대생과 비교하여 거의 5배와 7배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근본 원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데서 오는 좌절로 꼽는다. 여성을 핵심 인력으로 쓰거나 키우지 않고, 보조 인력이

6) the Economist. (2019 & 2020). *Glass-ceiling index*.

7) 임재우 (2020.11.13). 조용한 학살, 20대 여성들은 왜 점점 더 많이 목숨을 끊나. <한겨레신문>; 장숙량, 백경흔 (2019). 청년여성의 자살문제. <사회건강연구소 보고서>.

나 잉여 인력으로만 활용하는 전통적인 인사 관행들이 학창 시절에 우수했던 여학생들을 사회에서 좌절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정부가 대처방안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뿌리 깊은 인사 관행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막는 곳곳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빨리 제거될지 의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생태계에서 여학생이 성장하여 여교수가 되는 경력사다리를 전공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20년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의 학부에는 약 2백만 명의 학생이 적을 두고 있다 (표 참조).<sup>8)</sup> 이들 중 여학생 비율은 전공별로 57.8%(인문)부터 20.1%(공학)까지 분포하며 전체 평균은 42.4%이다. 대학원생 중 여성 비율은 약 51%인데 전공별 분포는 대부분 학부생 분포와 비슷하고, 사회과학(58%)과 예술 체육 계열(64%)은 학부생 분포보다 약 10% 정도 높다. 대학원에서 학위(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문 후속세대들이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할 때 대부분은 시간강사나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과 같은 비전임 교원의 자격으로 대학에 적을 둔다. 이들 비전임 교원의 숫자는 전국 4년제 일반대학에서 약 8만 3천 명 정

---

8) 한국교육개발원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http://kess.chedi.re.kr>

표. 4. 4년제 일반대학 학생과 교수의 전공계열별 성별 구성

구분	계열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공학	의약	소속학과 없음	합계
		남	96,486	316,082	93,660	124,907	455,922	53,761	
학부	여	132,182	293,830	116,021	103,507	114,644	80,001		840,185
	(비율,%)	(57.8)	(48.2)	(55.3)	(45.3)	(20.1)	(59.8)		(42.4)
	합계	228,668	609,912	209,681	228,414	570,566	133,762		1,981,003
대학원생	남	20,414	57,445	9,502	15,026	42,667	11,390		156,444
	여	27,714	77,612	17,172	12,888	10,935	17,830		164,151
	(비율,%)	(57.6)	(57.5)	(64.4)	(46.2)	(20.4)	(61.0)		(51.2)
합계	48,128	135,057	26,674	27,914	53,602	29,220		320,595	
교수_ (비전임 교원)	남	8,408	11,079	7,616	5,070	9,861	4,997	2,788	49,819
	여	8,124	6,760	8,332	2,758	2,009	4,017	1,581	33,581
	(비율,%)	(49.1)	(37.9)	(52.2)	(35.2)	(16.9)	(44.6)	(36.2)	(40.3)
합계	16,532	17,839	15,948	7,828	11,870	9,014	4,369	83,400	
교수 (전임 교원)	남	6,659	10,261	3,132	6,264	13,639	9,662	149	49,766
	여	3,417	3,958	1,780	1,502	904	4,712	15	16,288
	(비율,%)	(33.9)	(27.8)	(36.2)	(19.3)	(6.2)	(32.8)	(9.1)	(24.7)
합계	10,076	14,219	4,912	7,766	14,543	14,374	164	66,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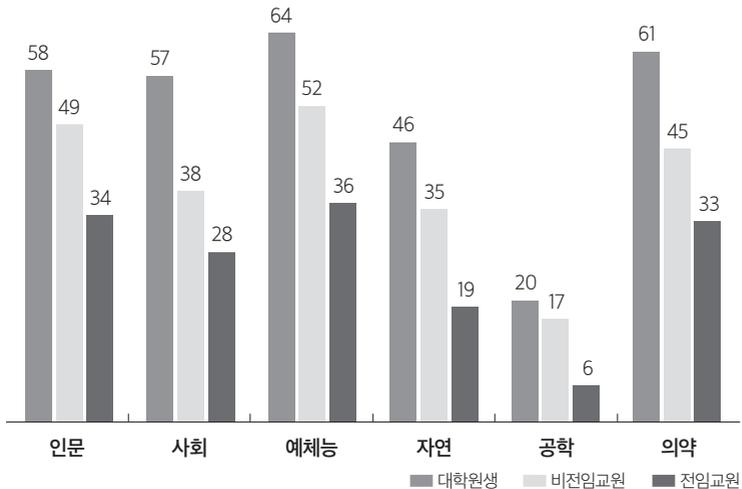
- 학부 및 교수 통계는 출처에 명시된 바와 같이, 4년제 일반대학 기준(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을 제외한 191개로 전체 4년제 대학의 약 84%에 달함)이고, 학부생수 및 대학원생수는 재학생, 휴학생 등을 포함.
- 계열분류는 출처에 제시된 분류를 따르되, 교육을 사회에 포함하여 재산정.

※ 출처: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0.12.)

도로 집계된다. 이들 중 약 40%가 여성이다. 경력사다리의 최상위인 전임 교수의 경우, 전국 약 6만 6천 명 중 24.7%가 여성이다.

이들을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공학, 의약학 전공별로 대별하여 대학원생과 비전임교원, 전임교원의 직위에 따라 여성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참조). 그래프를 보면, 모든 전공계열에서 경력사다리가 얼마나 가파른 각도로 꺾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학계열(20%)을 제외한 모든 전공에서

그림. 전공계열별 경력사다리(대학원생→비전임교원→전임교원)의 여성 비율



대학원 여학생의 비율은 45%를 상회한다. 대학원생에서 비전임 교원을 거쳐 전임교원으로 옮겨가는 경력사다리에서 여성 비율이 모든 전공에서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여학생들이 연구생태계의 경력사다리에서 남성에 비해 많은 이탈을 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비전임 교원들이 전임교수가 될 자격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라 본다면, 대학은 가용한 인재 풀에서 여성을 전임교수로 제대로 임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통계가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대학에서 전임 교수의 수가 가장 많은 전공은 공학계열이다. 총 14,500명의 공학계열 교수 중 900명 정도가 여성이다. 공학계열 여학생의 비율이 약 20%이고 비전임교원도 17%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공학 계열의 여교수가 대학원과 비전임교원의 여학생 수를 반영하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재보다 약 3배 정도의 인원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학 계열의 여학생 수는 서양은 물론이고 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유난히 적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경우 여학생 비율이 13%인데, 미국 MIT(46%)나 칼텍(38%)에 비해 한참 적은 수치이다. 공학 계열로 우수한 여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롤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여학생 친화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교수를 더 많이 임용하는 것이다.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여성 롤모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수학과목

의 경우 여교수가 여학생의 학습효과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sup>9)</sup> 이미 젊은 여성 공학자들이 대학원과 비전임교원 풀에 상당수 배출되어 있으니, 이들을 전임교원으로 부지런히 임용한다면, 초중등 여학생들을 공학 계열로 유인하는 윈윈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

9) Dasgupta, N. (2011). Ingroup experts and peers as social vaccines who inoculate the self-concept: The stereotype inoculation model. *Psychological Inquiry*, 22(4), 231-246.; Carrell, S. E., Page, M. E., & West, J. E. (2010). Sex and science: How professor gender perpetuates the gender gap.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5(3), 1101-1144.; 안윤정, 임윤서. (2016). 여대생의 성찰을 통해 본 한국사회 여성 리더십의 의미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17, 213-250.

## ■ 감춰진 차별과 편견의 인정; 개선의 출발점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과정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눈에 띄는 불리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20년 전 대학원 진학의 문이 좁아 경쟁이 심했을 때 여학생들의 진입을 공공연하게 말리거나 또는 암암리에 차단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현재 상황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이 대학원 이후의 경력 사다리로 전이되어 좀 더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자들은 알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차별적인 행위들이 더 위력을 발휘한다. 대학원생에서 비전임교원, 이어서 전임교원으로 가는 경력 사다리의 기울기가 급하게 꺾이는 지점들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현장의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비전임직의 삶 자체도 각종 난관으로 인해 녹록치 않지만,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으면 책임자나 리더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 그렇게 심한 좌절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 전임교수의 비율이 그 전공분야의 가용 인재풀을 반영한 수치라면, 비록 그 숫자가 작더라도 학문후속세대의 여

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학교의 교수이건 사회의 리더이건, 인재풀의 성별 비율이 반영된 채용이 중요한 이유이다.

정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임교수직에 조교수로 임용되는 여성의 비율이 근래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음은 그나마 고무적인 현상이다. 대학원 학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회로 진출한 젊은 여성인재들에게 가부장적인 교수 사회나 보수적인 대학이 차츰 문을 열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다. 그러나 그 증가 속도는 경력 사다리의 감소 폭을 줄이기에는 너무 느려 이 시대의 시급한 화두인 젊은 여성인재들의 좌절과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교원 임용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현재 16%)을 향후 10년 동안 사립대학 평균과 비슷한 25%로 높이는 능동적 조치의 권고가 대학의 변화를 앞당기길 기대해 본다.<sup>10)</sup>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연구 중심, 또는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사립대학들에서도 능동적 노력이 병행되어 변화의 속도를 앞당기길 기대한다.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임용이 능동적 조치의 권고로 인해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대학 평가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수동적 대응 차원에 머무

---

10) 이효석 (2020.01.09).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 16%→25% 늘어난다…3년만에 법 통과. <연합뉴스>.

른다면, 대학 사회의 질적인 발전은 그만큼 지연될 것이다.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변화는 여성 교수의 적극적 채용과 승진에 대해 대학의 구성원 대부분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용과정에 있을 수 있는 숨겨진 편견과 차별 요인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드러내, 그 요인을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틸다 효과에 대한 신념을 가슴깊이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성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만 했을 것이라는 은연중의 편견을 작동시켜, 저명한 지도교수와 함께 낸 논문의 성과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경향은 없는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저명한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 경력을 평가할 때 남성지원자는 훌륭한 네트워킹이 가능하여 앞으로 학술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인정해주는 반면, 여성지원자의 경우는 지도교수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테니 자신만의 영역을 만드는데 부족할 것이라는 상반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여학생 제자를 향후 지도자로 키워낼 기회를 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해오도록 양육하는 경향과도 맞닿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입 여성 교수를 멘토링 하여 리더로 키워주지 않고 방치하는 경향과도 연결된다.

70년대 중반 필자가 학부 자연계열로 입학하여 2학년 때 학과 전공을 선

택할 당시, 지도교수가 필자를 말리며,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려 하느냐, 여자들에게 적합한 약사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약대로 진입하는 게 어떠냐고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필자가 미국유학에서 돌아와 80년대 중반에 조교수로 임용되자, 일을 잘한다고 평가하시면서, ‘여자지만’ 일을 꽤 잘한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셨다.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런 고루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형태만 달라졌을 뿐,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전히 대학 사회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키워주면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수들의 본분이고, 대학의 사명이 아닌가. 딸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기대를 크게 가지는 고루한 부모가 여전히 존재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남의 딸인 여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스승이 고루한 부모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대학은 인재 양성의 절반을, 아니 그 이상을 실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믿어주고 기대해 주는 것이 교육의 근본일 진대, 성별에 따라 기대의 차이를 두고 있는, 우리 안의 감춰진 편견을 우리는 언제까지 못본 척 할 것인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선량하고 공정하다고 자부하는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품고 있는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 차원에서 드러내고 비춰보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sup>11)</sup>

---

11) 김지혜 (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Banaji, M. R., & Greenwald, A. G. (2014). <마인드 버그> (박인균 역). 추수밭.

## ■ 교수 사회의 변화; 다양성 임용

성별을 불문하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암암리에 작용하는 차별을 없앨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별이나 학별로 과소 대표된 (under-represented) 집단의 후보자를 면접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한 방안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 다양성 보고서에서 교수 현황을 “다양성 임용”의 측면에서 학과/전공 단위별로 집계하는 것은 각 학과별로 교수 구성이 얼마나 다양한 지를 들여다보게 한다. 전임교원 중 여성, 타교 학부 출신, 외국 국적 중 한 개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교원의 비율을 ‘다양성 임용’으로 집계하고, 성별, 학문적 훈련, 국제화를 반영하는 교원 다양성의 한 지표로 활용한다. 같은 대학(학과) 학부 출신의 남성 교수가 (또는 여성 교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성별이나 외국인, 또는 타교 출신 교수 비율이 심각히 적지 않은지, 또는 학과 교수의 대부분이 한 나라나 (예를 들어 미국) 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학문의 동질성이 너무 높지 않은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다양성 임용을 늘리기 위해 과소 대표된 집단의 후보자들을 면접 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면접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도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성 교수들과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에게 면접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춘 질문을 통해 이들이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화를 돋우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위기 대처능력을 시험해 본다는 면접 전략은 갑질과 편견의 위장된 표현일 뿐이다. 여성 지원자에게만 유독 결혼 여부, 가정과 일의 병행 방법을 걱정하며 해법을 요구하는 무례한 면접, 타고 출신 지원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심하고 불친절한 안내 등은 이들을 선발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를 무언으로 드러내는 방식일 수도 있다. 다학제적 융합과 혁신이 수월성(excellence)의 근원임을 상기한다면, 비슷한 생각과 경력을 가진 교수들만 모여있는 학과가 과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도태를 면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다양성 임용의 비율이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2016년 29.1%에서 2019년 32.1%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다양성에서 힘이 나오고 다양성이 수월성의 기반이 된다는 의식이 공유되며, 다양성 임용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다양한 비전임 전문가들의 가시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학에는 다양한 이름의 비전임 교원 또는 연구원이 있다. 시간강사, 강의전담교수, 연수연구원(포닥), 연구교수, BK교수, HK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연구원 (책임, 선임, 원급, 객원), 초빙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등. 이들 중 겸임, 객원, 초빙교수 등의 직함은 이미 직업이 있는(던) 경력자를 교류나 부분 고용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교류/부분고용 형태를 제외하고, 전업(full-time)으로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비전임 교원/연구원들의 수가 상당한데, 이들에 대한 통계는 현재 매우 불투명하고, 부정확하다.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2016년 보고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천착한 부분의 하나도 전업(full-time) 비전임 교원/연구원에 대한 통계이다. 서울대의 경우, 2019년 현재 강의전담 교수와 전업 시간강사(학기당 3과목 이상 담당)로 일하는 전업 비전임 교육 중심 교원은 803명(여성 60%)이고, 연구교수와 포닥, 연구소 소속 연구원 등 전업 비전임 연구 중심 교원/연구원은 1,397명

(여성 40%)으로 집계된다. 전업 비전임 교원/연구원 (2,200명)은 전임교수의 수(2,245명)와 거의 같고, 이들 중 47%가 여성이다.<sup>12)</sup> 교류/부분고용까지 포함한 전체 비전임들은 모두 3,378명으로 전임교수의 1.5배 수준이다. 이들 비전임 교원/연구원들은 그동안 학교의 공식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았고, 다양성위원회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이들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연구책임자: 이강재 교수, 그 결과가 다양성보고서에 특집으로 수록되었다.<sup>13)</sup> 이들의 가장 큰 고충 사안은 고용 불안정이며, 전업 시간 강사가 고용 안정성이나 소득 면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사들은 향후 여러 직책의 비전임 교원/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연봉과 복지를 비롯한 복무 조건의 표준화와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교육부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전업 비전임 연구자들에 대해 대학이, 특히 BK21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대학들이, 그 현황과 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2)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20).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19>.

13)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19). <서울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18>.

## ■ 올타리 밖의 외국인 연구자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국제 영화상(외국어 영화상) 부문에만 유력 후보에 오르고 다른 부분 후보에는 아직 노미네이션 되지 않았을 때,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미국 “로컬 영화제”로 규정하여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1인치 자막의 장벽’을 얘기하며, 외국작품들의 소외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작품상을 비롯한 4개 부분 상을 석권하게 되자, 우리는 비로소 외국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아준 ‘글로벌’한 아카데미상에 마음껏 찬사를 보냈다. 구미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유학을 하며 살아본 사람들은, 유색인종으로서 백인들의 사회에 제대로 끼어들 수 없음을 피부로 또는 뺨속 깊이 체험한 경험을 다 갖고 있을 것이다. 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소수자들이 주류의 사회에 끼어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살아보지 않아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기생충’이란 작품의 세계적인 인정은 마치 인종과 문화의 벽을 한국인 전체가 함께 넘어선 것 같은 속 시원함을 가져다주었다. 그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 안에 우리와 함께 있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내 4년제 일반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 교원은 6,300명 정도이고, 이중 전임교원은 4,100여명으로 전체 전임교원의 6%에 해당한다.<sup>14)</sup>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는 38,100여 명으로 전체 대학원생의 12%에 달한다. 서울대학의 경우 외국인 전임교수는 전체 전임교원의 4.7%인 105명인데, 2016년 5.2%에서 계속 비율이 줄고 있다. 대학원 학생의 경우 전체의 5.1%가 외국인인데, 이 비율도 3년째 계속 감소 중이다. 외국인 교수의 상당수는 외국 국적을 가진 교포로 추정되며, 국제화의 관점에서 외국의 주요 대학들과 비교하여 매우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15)</sup>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전임교수들이 교육과 함께 연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고, 외국인 학생들이 충분히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외국인 전임교수의 연구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는 연구비 수주 현황이다. 한국연구재단이 2020년에 지원한 전체 연

14) 한국교육개발원 (202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http://kess.kedi.re.kr>

15) 동아일보 사설 (2017.12.19). '무늬만 외국인 교수' 늘려 대학경쟁력 올라가겠나.

구과제의 책임자 37,000명 중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연구자는 1.7%인 630명에 그친다.<sup>16)</sup> 연구자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영문 정보와 서식의 부족 등,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장애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양성위원회가 설립을 지원한 서울대 국제교수회 회장 소냐 마틴교수가 지적한 대로, “국제화를 세계 대학평가에서 대학 순위를 올리기 위한 평가 항목 이상으로 생각해야 하고, 조직 전체에 걸쳐 여러 권한을 가진 구성원들이 국제화를 받아들여야 하며, 국제화가 내국인 교원과 학생들의 강의/학습/연구에도 많은 혜택을 준다는 점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계획이 공유되어야 한다.”<sup>17)</sup>

---

16) KRI(한국연구자정보)에 등록된 국적정보를 기준으로 산출. 단, 국적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입한 경우 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17) SNU국제교수회 회장, Sonya N. Martin 교수 인터뷰,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홈페이지, 2020.12.18

## ■ 생태계의 건강성

자연의 생태계에서 다양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조망된다. 하나는 특정 공간의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종(種, species)의 종류와 개체 수를 따지는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또는 군집(群集, population)내 개체(individual)들의 다양성 차원이다. 지역적인 생태계와 지구 생태계 전체는 종다양성이 충분히 유지되어야 건강성이 유지된다.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 생태계의 그물망은 멸종에 의한 종다양성의 감소로 구멍들이 생기게 되면, 생태계 전체의 존속이 위협받게 된다. 한 종에 속한 모든 개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멸종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초래되는데, 특히 집단내 개체들이 유전적 동질성을 갖는 집단은 환경적 역조건을 만날 때 한꺼번에 몰살될 가능성이 크다. 집단 내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개체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경우, 즉 다양성이 큰 집단일수록,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세균이나 곤충의 집단에서 항생제나 살충제에 저항성을 갖는 변이 개체들

이 섞여 있으면, 항생제나 살충제의 공격을 받더라도 소수의 저항성 개체가 살아남아, 집단의 존속을 이어가는 현상들이 자연계에서 변이 또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들이다. 바이러스들이 변이를 일으키는 것도 면역계의 공격을 피하는 생존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인간 사회에서도 구성원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목적이나 가치를 공유하며 활동하는 연결망을 이룰 때 생태계라는 생물학적 용어를 원용하여 지칭한다. 교육 생태계, 금융 생태계, 연구 생태계, 창업 생태계 등 다양한 인간활동들이 자연 생태계의 현상과 원리로 비유되고 이해된다. 따라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다양성이라는 생물학적 진리는 인간활동의 생태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양성(변이)이 진화를 가능케 한다는 기본 원리도 인간의 생태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인간의 각종 활동 생태계에서도 구성원의 다양성, 연결과 작동 방식의 다양성이 핵심 가치가 되며, 인간이 만드는 생태계의 진화도 ‘남들과 다른’ 개인의 출현과 공존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의 힘

우리는 어떤 연구생태계를 바라는가. 생태계인 이상 당연히 지속가능하게 진화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를 하면서 바라는 목표는? 지식의 진보와 우리 국민을 포함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목표를 이루려면 기존에 없던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서 수월성이 배태된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연구생태계는 지속가능하게 진화 발전하며, 새로운 발견을 탁월한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연구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기본 속성인 지속가능성과 진화, 창의성과 수월성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성'이란 가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성은 약한 존재를 끌어안아야 하는 윤리적 차원의 “배려”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성, 역동성과 수월성을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의 역할을 한다. 유전자와 교육, 경험과 시각이 다른 개개인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활발하게 협업할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기업들은 이미 경영 원리로 활용하고 있다. 다양성이 곧 “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동질성은 곧 퇴화를 의미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학계나 연구생태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최고의 업적들은 학제를 뛰어넘는 융합연구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진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연구과제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전염병이나 기후변화, 미래 에너지나 난치병, 우주 개척 등 거의 모든 굵직한 연구주제들은 다학제, 초학제 공동연구를 통해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관점이 다른 구성원이 섞여 있어야 기존의 전통적 질문과 다른 참신한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질문을 풀어갈 새로운 방식들을 찾아낼 수 있다. 다양한 전공의 학력과 경력, 성별과 국적, 사고방식과 문화가 다른 개인들이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통할 때만이 복잡한 연구주제의 탁월한 해결이 가능하다. 연구를 통한 지식의 창출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대학의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힘이 될 수 밖에 없다.<sup>19)</sup>

---

18) Page, S. (2008). *The difference: difference: How the power of diversity creates better groups, firms, schools, and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McKinsey & Company (2020). *Diversity wins.*; McKinsey & Company (2018) *Delivering through diversity.*; McKinsey & Company (2015). *Why diversity matters.*

19) Stewart, A. J., & Valian, V. (2018). *An inclusive academy: Achieving diversity and excellence*. Mit Press.;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2020). <고려대학교 다양성보고서 2019>.

## 한국연구재단의 역할

한국연구재단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행되는 연구와 인력양성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시행하는 각종 연구사업과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이 연구재단을 통해서 집행된다. 2019년 기준 연구재단은 인문 사회로부터 이공, 의약학에 이르는 학문 전 분야에서 약 3만 8천 과제를 지원했고, 이 중 대부분인 3만 3천 개의 과제가 대학에서 수행되었다. 대학이 정부로부터 받는 연구비의 80% 이상인 약 4조 1000억 원이 연구재단을 통해 지원된다.<sup>20)</sup> 대학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10개 이상의 정부 출연연구소들도 연구재단의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지향하는 비전이 “학술·연구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인 것은 매우 적절하다.

20) 한국연구재단지원통계시스템(KRS), [www.stats.nrf.re.kr](http://www.stats.nrf.re.kr)

학술연구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재단은 구성원의 다양성과 구성원 간 연결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임무,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 연구 윤리와 책임성 있는 연구를 뒷받침하는 임무,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연구 문화를 확산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다양성의 관점에서 점검할 요소들은 학문 분야, 연구자의 연령, 성별, 직위, 지역적 분포, 소속기관, 국적, 장애 여부 등 여러 측면이 될 것이다. 마땅히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야 할 집단 중에 과소대표되고 있는 집단이 있다면, 참여를 늘릴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할 임무가 있다. 과제를 심사하는 평가자와 평가자를 추천하는 전공 분야별 대표자들 (Review Board; RB)의 균형적 다양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비전임, 지역, 외국인 등 과소 대표된 집단의 참여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고 경쟁력을 유지하게 지원할 포용적 방안들이 필요하다.

연구자 구성의 다양성이 빛을 발하려면, 학문적 배경이 다른 연구자들이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함께 풀어내는 융합연구의 성공사례들이 더 많이 축적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 간의 연결이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소통의 방식이 다변화되고, 자유로운 영혼의 젊은 연구자들이 등장하면서, 학문 분야나 학벌 중심으로 남아있던 폐쇄적 클럽 문화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사물의 인터넷 연결에 더해 모든 사물의 인공지능화, 극단의 진폭이 점점 커지는 기후변화, 두려운 상상이 즉시 현실로 대

두되는 전염병의 위협 등 우리의 코앞에 다가온 지구적 난제들은 과거의 전통적 학문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다. 지역과 글로벌,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적 문제가 함께 섞인 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조합을 이루고 힘을 합쳐야 한다. 연구재단은 창의적 문제 풀이를 위해 연결의 다양성을 높일 방안도 꾸준히 모색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학술·연구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전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 박 동 우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교수, 무대미술가

최근 우리는 K-컬처의 빅뱅 시대를 살고 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K-팝, 넷플릭스 상위권을 독차지하는 K-드라마,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무비, 세계 3대 뮤지컬 제작 국가로 올라선 K-뮤지컬, 반경 1km 이내에 160개 이상의 극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 등 나열하기 식상할 정도로 대단한 극장 문화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20세기가 되기 전에는 극장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1902년이 되어서야 한국 최초의 극장 ‘협률사’가 생겨났다.<sup>1)</sup> 그 이후 광무대, 장안사, 연흥사, 단성사, 조선극장, 동양극장 등 여러 극장이 뒤를 이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중가요, 연극, 뮤지컬, 영화, TV 드라마, 국악 등 위에 열거한 모든 대중문화를 감상하던 곳은

---

1) 1902년 고종황제의 즉위 40년 칭경예식을 거행할 목적으로 광화문(현재 새문안교회 자리)에 왕립극장 협률사를 건립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 극장이 건축되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극장’이었다. 당시의 극장은 연극공연장이자 영화관, 콘서트홀, 국악당, 텔레비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번성하는 극장이 19세기까지는 왜 그렇게 전무했던가? 극장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극장을 성하고 쇠하게 하는지 세계 극장사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 ■ 극장이 성립되기 위한 물리적 조건

극장의 사전적 의미는 ‘관중에게 극 공연이나 무대 여흥, 혹은 영화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건축물이나 그 일부분 혹은 옥외의 구역’이다. 그러므로 무대와 (영화에서는 스크린과) 관중석이 필수요소이다. 그렇다면, 공연행위를 할 만한 공간과 그것을 다수의 관중이 지켜볼 공간만 갖추어지면 어디에서나 극장이 성립되는 것인가? 길거리 버스킹이 열리는 광장도 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나? 그 정도 공간은 조선시대에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혹은, ‘우리 민족은 마당극을 했으니까 장터 마당이든 부잣집 마당이든 모든 공터가 극장이었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극장은 최소한의 물리적인 조건을 필요로 한다. 어떤 공연행위(performance)가 시작되고 있는 한 공간을 상상해보자. 장날 공터에서 떠돌이 약장수 차력사가 맞배기 공연을 하며 관중들을 모으고 있다. 차력사 앞쪽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객들이 모여들더니 점차 그 수가 많아지면서 차력사를 둘러싸고 원을 그리기 시작한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자 그들은 두 번째

원을 그리기 시작한다. 둘째 줄 사람들은 앞 사람들의 머리 사이로 차례사를 지켜볼 수 있다. 본격적인 공연이 펼쳐질 무렵 세 번째 원을 그려야 할 만큼 관객들이 많아진다. 문제는 그 셋째 줄부터이다. 앞 사람들의 머리 사이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제2열과 달리, 제3열의 관객은 공연을 볼 수 없다. 제3열이 그려지는 시점에서부터 극장이 필요해진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높은 무대를 만들거나 경사진 관중석을 만들거나. 물론 그 둘 다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어느 쪽도 제공하지 못하는 장터 약장수는 우선 구매력이 없는 어린애들을 쫓아낸다. 그리고 제1열 관객들을 앉히는 방법으로 관중들의 높낮이를 만든다. 쫓겨난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릎을 타거나 근처 나무 위로 올라간다. 드디어 본격적인 차례 공연이 시작된다. 이곳은 극장일까? 공연자와 관람자가 나뉘어 있고 무대구역과 관람 구역을 갖추었다. 하지만 이곳은 극장이 아니다. 무대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건축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극장이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조건은 바로 시각선(sight line)이다.

원만한 시각선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건축행위는 무대 단을 높이는 것이다. 무대가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면 평지에 있는 다수의 관객 모두가 공연자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만들기 쉬운 만큼 단점도 있다. 관객들의 눈높이와 무대높이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무대 위에 있는 공연자들의 배치를 입체

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무대바닥에 쓰러진 공연자나 무대바닥에 놓인 소품들을 보기 어렵다. 또 하나의 방법은 관중석을 경사지게 혹은 계단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무대는 지면 높이가 그대로 두어도 된다. 이 방법은 첫 번째보다 더 큰 규모의 공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형에 따라서는 더 쉬울 수도 있다. 우묵한 골짜기형 땅에서라면 그 경사진 지면을 계단식으로 다듬기만 해도 대규모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쪽만 선택해도 극장이 성립된다.

■  
극장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가?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극장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의 극장들이다. 그 전엔 극장이 없었을까? 알 수 없다. 있었든 없었던 극장의 목적은 공연이었을 것이고 공연을 탄생시킨 욕구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종교적 욕구, 스토리텔링 욕구, 그리고 볼거리 욕구.

종교는 설명 불가능한 우주와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 강력한 동물 등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다. 고대의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해, 달, 바다, 비, 바람, 역병 등의 천체와 자연현상의 유래와 작동 원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에 대해, 혹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거나 조종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어떤 상위 존재에 대해 제물을 바치고 찬양과 기도를 함으로써 부족이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좋은 결과를 희구하였다. 원하지 않는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인간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악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기우제, 전승기원제, 봄축제, 추수감사제, 역병퇴치제, 속죄 의식 등 기복적 성격의 의식과 제례가 그것이다. 숭배 대상의 범위가 조상이

나 특정 인간, 사물이나 동물 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제례 의식은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점점 정형화되고 스토리텔링이 추가되기도 한다. 의식 종사자와 단순 참여자가 분리되면서 점차 공연의 형식을 띠게 된다.

스토리텔링은 주로 동물이나 타 부족 혹은 자연현상을 극복한 어느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고 듣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스토리텔링에는 자연스럽게 모방과 역할 놀이가 포함된다. 동물을 흉내 내기 위해 동물의 머리나 가죽 등을 덮어쓰기도 하며 인간을 모방하기 위해 가면이나 소품들을 쓰기도 한다. 종교적 욕구와 결합되어 신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며 실감이 나는 스토리텔링을 위해 화려한 볼거리를 가미하기도 한다.

볼거리 욕구는 가장 광범위하고 본능적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보기 위해 가까이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노래, 춤, 악기 연주, 마술, 곡예, 공놀이, 불놀이, 아름다운 인체, 극한적 신체 능력, 희귀한 동물, 조련된 동물, 인간의 싸움, 동물의 싸움, 인간과 동물의 싸움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중연희(popular entertainment)라고 불리며, 현대적 쇼 비즈니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볼거리들에 스토리텔링이 결합되기도 한다. 하나의 의식이나 공연 속에 위의 세 가지 모두가 혼합되기도 한다.

극장은 위의 세 가지 욕구로부터 만들어진 이벤트를 구현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장소이다. 극장은 일회성 구현이 아닌 반복적 구현이 예정될 때 생겨난다. 때번 임시로 짓고 허물기보다 영구적 시설을 갖추어 두는 편이 더 효과적일 때 극장을 짓는다. 극장을 건축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동의 비용으로 건축하게 되며, 개인의 흥행사업 이익이 극장 건축비용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개인의 비용으로 건축하게 된다. 당연히 공동체적 목적에 의한 국립극장이 먼저 발생하게 되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극장들, 현대의 국립극장 등이 이에 속한다. 영리적 목적의 민간 사립극장은 국립극장보다 역사적으로 늦게 발생하게 되며 오늘날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라스베이거스, 대학로 등에 있는 대부분의 극장이 이에 속한다.

## ■ 그리스 - 신화와 연극의 시대

극장을 만들어낸 고대 그리스<sup>2)</sup>의 문화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을 상징하는 신화와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이성, 그 둘 사이의 긴장과 조화로 이루어졌다고 요약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는 거대한 스토리텔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스의 신들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노동도 하고 실수도 하며 실연의 슬픔을 맛보기도 한다. 지상의 인간 캐릭터들을 거의 그대로 구현해 놓은 듯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성은 (과학을 포함한) 철학과 민주주의로 대변된다. 탈레스로부터 시작하여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철학은 서구 철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아리스타르코스의 지동설 등은 시대를 앞선 과학이었다. 또한 민주주의는 자유 시민의 이성을 제한 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

2)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Hellas에 사는 Hellenes라고 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익숙한 명칭인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을 쓰기로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은 신탁이라는 모습으로 인간들의 운명에 개입한다. 이미 결정되어 책에 씌어 있는 헤브라이즘의 그것과 달리 헬레니즘의 신탁은 예측할 수 없으며 그때그때 구해야 한다. 더구나 신탁은 대단히 모호한 문장으로 주어져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으므로, 피조물 인간의 무조건적 복종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이성적 해석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와의 결전을 앞둔 도시국가 아테네에 주어진 신탁은 ‘나무로 만든 성에 의지하라’였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나무로 만든 성을 ‘배’라고 해석하고 살라미스에서 해전을 준비하였고 결과는 대승이었다. 신이 준 운명에 맞서는 인간들의 고뇌에 찬 결정과 행동, 그것이 빚어내는 극적인 사건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 연극의 재료였다.

신화와 이성 간의 긴장과 조화는 연극과 극장을 만들었다.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봄에 개최하는 디오니시아 제전에서 BCE 534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났다. 최초의 배우 테스피스가 코러스의 리더와 대사(dialog)를 주고받음으로써 연극의 원시적인 형태가 갖추어진 것이다. 이후 서양 드라마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스킬로스가 제2의 배우를 추가하였고 <오이디푸스 왕>으로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진 소포클레스는 제3의 배우를 추가하였다. 또한 그는 코러스의 역할을 줄이고 개별 캐릭터를 강조하였다. 또 한 명의 위대한 비극작가 에우리피데스는 감성적이고 멜로드라

마퍽한 작품을 썼으며 플롯에 맞추어 자유롭게 신화를 변형시키기도 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도 많다. 총 1,000편 이상의 비극 중 총 31편만이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그것들이 바로 위의 세 작가들의 작품들이다. 디오니시아 제전 기간 중 5일이 공연을 위해 할당되었다. 그 중 3일간 비극이 공연되었고 3명의 극작가는 각각 하루씩 책임졌다. 하루에 3편의 비극을 3부작으로 공연하였다.

지금까지 작품이 전해지는 3명의 위대한 비극작가들이 활동하던 BCE 5세기의 디오니소스(Dionysus) 극장은 현재의 모습과 상당히 달랐다. 원형의 평무대와 그 뒤에 세워진 일시적인 배경 건물, 그리고 목재로 만든 임시 객석이 그들의 극장이었다. 그 후 BCE 330년경에 14,000석 정도의 석조 객석이 완성되었고 대극장 바로 옆에는 실내음악당(odeon)도 지어졌다. 이후 헬레니즘 양식으로 리모델링되었다가 로마의 속주가 된 후 BCE 1세기경에는 그레코로만 양식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로마인들은 검투 시합을 위해 무대 주위에 석조 바리케이드를 둘렀다. 그 상태에서 폐허로 변한 모습이 오늘날 아크로폴리스 남쪽 기슭에 남아 있다(그림1 참조).

그리스의 독특한 지형은 도시와 극장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육지의 80%가 산지인 그리스에서는 높은 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독립적인 수많은 도시국가(polis)가 형성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영토개념은 우리와 다르다. 우

그림1. 디오니소스 극장 (Theatre of Dionysus, Athens, Gree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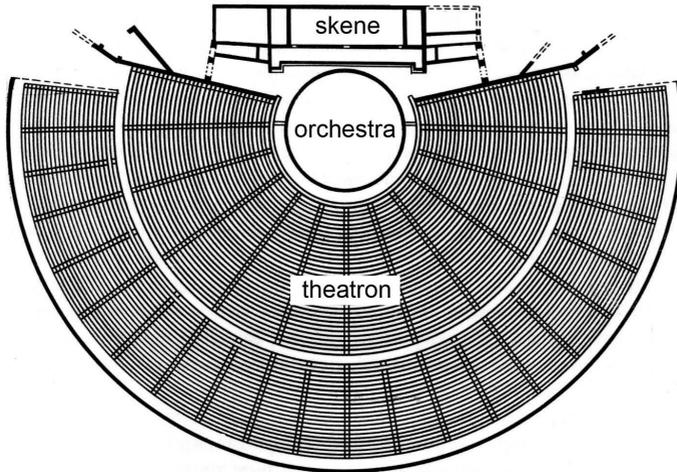


리는 육지를 중심으로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반도 국가이지만 고대 그리스는 바다를 중심으로 육지가 둘러싸고 있는 해양 국가였다. 에게해를 중심으로 서쪽의 그리스 본토와 동쪽의 소아시아(현재 터키) 해안이 고대 그리스의 영토였다. 평지가 부족한 그들은 생존을 위해 해양무역을 해야만 했다. 복잡한 해안선과 깊은 수심은 많은 천연 항구들을 제공했고 에게해에 흩뿌려진 수많은 섬들은 무역선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에게해 주변의 우목한 산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대규모 극장들을 건축하였다. 극장의 형태는 대부분 반원형이었다. 부채꼴로 펼쳐진 객석은 배우들의 표정과 대사를

감상하기에 최적의 형태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민이 모이는 곳에는 (스파르타를 제외하고) 거의 반드시 극장을 지었다.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의 극장은 200개 정도이다. 주로 현재의 그리스와 터키에 남아 있으며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등에도 여러 극장이 남아 있다.

고대 그리스의 극장은 여러 가지 어휘를 낳았다. 당시의 객석 떼아트론(theatron)은 극장(theatre)의 어원이 되었다(그림2 참조). 무대는 오케스트라

그림2. 그리스 극장의 구조 (Theatre of Epidaurus, Epidaurus, Greece)



(orchestra: place of dancing)라고 불렀는데 단상무대가 생겨나면서 그 오케스트라가 점차 객석으로 변하여 오늘날 영어권에서는 1층 객석을 오케스트라라고 한다. 그리고 1층 객석과 단상무대 사이에 남은 오케스트라 박스 속에서 연주하는 악단을 오케스트라라고 한다. 무대 뒤에는 스케네(skene)라는 배경건물이 있었는데 분장실과 등퇴장구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이 발전하여 현대 극장의 액자틀무대(proscenium)가 되었다. 스케네는 장면(scene)과 무대장치(scenery), 영화(cinema) 등의 어원이 되었다.

## 로마 - ‘액션 영화’의 시대

로마는 타민족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해 대단히 관용적이었다. 높은 수준에 있던 그리스의 문화는 물처럼 로마로 흘러 들었다. 그리스의 신은 이름을 바꾸어 로마의 신이 되었다. 아프로디테가 베누스로, 디오니소스가 바쿠스로 바뀌었듯이 그리스 연극의 등장인물들도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번안되었다. 로마인들은 기질적으로 비극보다 희극을 선호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플롯은, ‘부잣집 아들을 사귀는 가난한 집 처녀가 남자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다가, 자신이 어릴 적 잃어버린 귀족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밝혀내고, 축복 속에 결혼한다’는 스토리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출생의 비밀’ 플롯은 로마의 극장을 거쳐 현대 한국의 안방에서 까지 변치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로마인들도 도시마다 극장을 지었다. 디오니소스 극장처럼 이미 있는 그리스 극장들을 로마식으로 리모델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새롭게 건축했다. 산지를 이용하여 대규모 객석을 지었던 그리스인들과 달리 로마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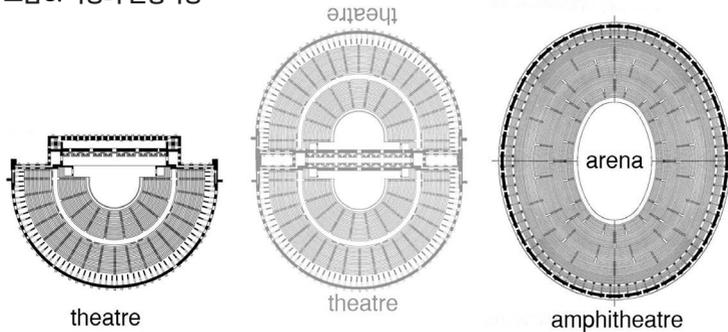
평지에도 거대한 극장을 건축하였다. 그들이 자랑하는 아치 기술과 풍부한 노예 노동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스 극장의 객석과 무대, 배경 건물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인들은 그것들을 하나로 합치고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무대 상부에는 경사진 지붕을 설치하여 화려한 파사드를 보호하였고 객석 상부에는 개폐식 차양막을 설치하여 뜨거운 햇볕을 가렸다. 현재 600개 이상의 로마 극장 유적들이 이탈리아는 물론 그리스와 터키, 스페인, 프랑스, 레반트, 북아프리카 등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에 남아 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장르는 따로 있었다. 철학적이고 진지한 성향의 그리스인들은 드라마틱한 연극을 좋아했지만 세속적이고 쾌활한 성향의 로마인들은 행동적인 스펙터클을 좋아했다. 그들은 ‘스펙터클 액션 블록버스터’를 즐겼다. 아직 영화가 발명되지 않았을 뿐, 그들은 사실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표정과 대사 전달을 위해 무대와 객석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연극과 달리, 영화는 360도의 감상 방향을 가진다. 비록 스크린과 객석의 관계는 일방적이지만, 카메라가 모든 방향에서 사건과 인물을 촬영해 주기 때문이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액션 무비’를 위해 새로운 극장을 발명하였다. 2개의 반원형 극장(theatre)을 양쪽(amphi-)에서 마주보게 붙이고 가운데를 튼, 원형극장(amphitheatre)이 그것이다. 피에 젖은 무대 바닥을 빠르게 청소하기 위해 모래(arena)를 깔았기 때문에 아래

나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림3 참조).

대표적인 원형극장은 로마의 콜로세움(Colosseum)이다. CE 80년에 완공된 이 극장은, 100일 동안 계속된 개관 공연에서 9,000마리의 야생동물들을 희생시키면서 로마인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원형극장은 다양한 공연과 행사에 사용되었다. 가장 인기 있는 공연은 야생동물 사냥이었다. 관객들은 아프리카의 자연을 모방한 무대 위로 돌아다니는 코끼리, 타조, 호랑이, 사자, 코뿔소 등 말로만 듣던 이국의 동물들을 실제로 구경하는 경이로

그림 3. 극장과 원형극장



“ 로마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액션 무비’를 위해 새로운 극장을 발명하였다. 2개의 반원형 극장(theatre)을 양쪽(amphi-)에서 마주보게 붙이고 가운데를 트, 원형극장(amphitheatre)이 그것이다. 피에 젖은 무대 바닥을 빠르게 청소하기 위해 모래(arena)를 깔았기 때문에 아레나라고 부르기도 한다. ”

움을 즐겼다. 더 자극적인 즐거움은 동물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혈투를 보는 것이었다. 칼 한 자루를 쥔 죄수들과 노예들은 죽음과 포상 사이에서 각본 없는 사투를 맹수들과 벌였다. 다키아 정복 기념 시리즈 공연에는 총 11,000마리의 동물들과 10,000명의 전쟁포로들이 동원되었다. 신화와 영웅담을 재현한 액션 드라마와 전투를 재현한 검투 시합도 인기 종목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공연은 모의대전 나우마키아(naumachia)였다. 오늘날 우리가 영화 <명량>을 보듯이 고대의 로마인들도 자국의 승전 장면을 실감나게 보고 싶어 했다. 콜로세움의 타원형 무대를 가득 채운 물 위로 크고 작은 전함들이 편을 나눠 움직였고, 갑판 위의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실전에 가까운 전투를 벌였다.

이 거대한 원형극장은 최대 87,000명의 관객들을 수용하였다. 무대에 가까운 객석에는 황제와 원로원 의원들과 사제들이, 최상층의 객석에는 빈민층과 노예들이 앉았다. 높이 48m의 극장 상공에는 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한 개폐식 차양막을 설치하였다. 후일 무대지하에 6m 높이의 준비실을 추가하였으며 출연자와 동물, 무대장치를 신속하게 본무대로 등장시키기 위한 다수의 승강무대들을 설치하였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영화관(movie theatre)'이었던 셈이다.

## 중세 - 암흑의 시대

일반적으로,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으로부터 동로마(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투르크에게 함락된 1453년까지의 약 1천년의 유럽을 중세라고 부른다. 그리고 중세에는 흔히 '암흑의 시대'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서로마가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극장문화는 쇠락하기 시작했다. 로마의 정치적 불안정과 이민족의 잦은 침략, 경제력 약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기독교의 성장도 그 중 하나였다.

1세기 중반 바울의 선교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식민지 그리스는 사실상 최초의 기독교국가가 되었다. 그리스로부터 로마 본토로 점차 전파된 기독교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으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교리와 성서 정경을 확정하였다. 392년 로마제국 전역에서 타 종교에 대한 신앙고백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기독교는 로마의 배타적인 국교가 되었다.

기독교와 극장은 본질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째, 극장은 태생적으로 디오니소스 신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타적 유일신관을 가진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교도의 신을 숭배하는 의식에서 출발한 연극을 용납하기 어려웠다. 둘째,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모세의 십계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는 계명의 ‘형상’에, 어떤 인격체를 무대 위에서 형상화하는 연기행위까지도 포함시키면 연극은 금지의 대상이 된다. 셋째, 연극이 도덕적 타락을 부추긴다고 보았다. 특히 로마 대중연희의 오락성과 외설성, 폭력성은 기독교적 엄숙성, 도덕성과 반대의 위치에 있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위의 이유들 이외에도 연극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 기독교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 둘은 양립하기 어려웠다. 중세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태양계의 탄생과 생명의 기원 등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신의 섭리로서 성서에 적혀 있으며 인간은 그에 복종할 뿐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은 용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연극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이 부여한 운명을 마주한 인간이 그의 이성과 의지로 자신의 앞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맞이하는 사건들을 무대화한 것이다. 고민하며 결정하는 무대상의 인간을 지켜보며 그가 던지는 존재론적 질문을 관객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된다.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이러한 질문들이 획일적이

고 배타적인 정답을 가진 기독교적 세계관과 병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진 직후 열린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기독교 축일에 극장에 출입하는 자들을 파문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또한 배우들의 성찬 참석을 금지하였다. 이 칙령은 18세기에 이를 때까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지켜졌다.<sup>3)</sup> 404년에는 검투시합이 폐지되었고 523년에는 야생동물싸움이 폐지되었다.

기독교의 융성은 극장 쇠락의 부수적인 이유였을 뿐이라는 관점도 있다. 제국 내부로부터의 쇠약, 이민족의 침략,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쇠퇴 등이 주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성을 동시에 누리며 고대 그리스의 많은 연극 대본들을 보유하고 있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도 극장 활동이 전무했다는 사실은 기독교 이외의 요인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각으로는 이후 천년 동안이나 유럽 전역에서 지속된 극장의 암흑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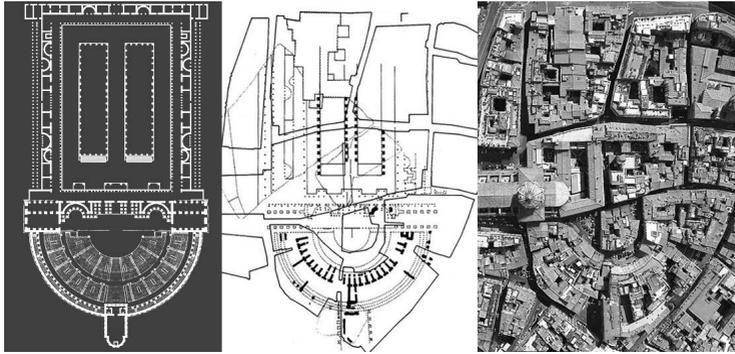
3)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는 한때 배우와 극작가로 일했다는 이유로 교회 장례식을 거부당했다.

## 로마에는 로마극장이 없다?

사용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극장들은 채석장으로 변해갔다. 현재 로마에는 콜로세움 이외의 로마 극장이 남아있지 않다. 로마를 대표하던 폼페이우스(Pompeius) 극장은 객석의 직경이 150m에 이르는 거대한 극장이었지만 지금은 객석의 형태를 따라 둥글게 배치된 일반 건물들의 항공사진만이 그 자리를 짐작케 할 뿐이다(그림4 참조). 그와 경쟁하던 마르켈루스(Marcellus) 극장은 파사드의 극히 일부분만이 일반 건물 밑에 남아서 고대 극장이 있었던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그 외에도 2개의 큰 극장이 있었다고 한다. 술한 시련을 겪어온 콜로세움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기독교 박해를 상징하는 성지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의 박해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 전역의 그리스 로마 극장들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오히려 쇠퇴한 도시의 극장들, 에피다우로스(Epidaurus) 극장과 아스펜도스(Aspendos) 극장은 채석장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중세시대에 연극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연극을 금

그림 4. 로마 극장의 흔적 (Pompeii Theatre, Rome, Italy)



지시킨 교회에서 연극이 다시 시작되었다. 10세기에 이르러 문맹의 민중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어 노래하고 연기하는 예배극이 교회 내에서 조금씩 공연되기 시작했고 13세기에는 교회 밖 광장에서도 공연되기 시작했다. 공연의 내용은 성서의 일부분이었는데 주로 예수의 생애와 부활이었다. 중세 후기에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번창하고 각종 상공업자들이 길드를 조직하였다.<sup>4)</sup> 가장 뛰어난 광장 종교극

4) 빵 길드는 <최후의 만찬>, 조선 길드는 <노아의 방주>, 금세공업자 길드는 <동방박사의 경배> 공연을 제작하였다.

들은 그들에 의해 14세기 중반부터 16세기말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그 시기는 미술과 건축에서는 이미 르네상스의 전성기였다. 1547년의 발렌시앵 수난극, 1583년의 루체른 수난극 등이 대표적이다. 연극은 사회의 반영이므로 다른 예술장르에 비해 시대적으로 조금 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 하더라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엘로의 시대가 끝난 후에 공연된 연극을 종교극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세연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중세 회화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것도 중세적 소재의 르네상스적 표현이 아닐까? 어쨌거나 그 종교극들과는 완전히 다른 르네상스 극장문화가 곧 시작된다.

## 르네상스 - 다양성의 부활

‘인간은 참으로 위대한 기적이다.’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인간은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Leon Battista Alberti)

‘인간은 자유로운 사회에서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다.’ (Ottavio Rinuccini)

이상은 르네상스의 특징을 단적으로 웅변해주는 르네상스인들의 선언문들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개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은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이 실제로 증명해 보였다. 르네상스의 일반적인 배경과 과정, 성취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극장에만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극장이 부활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공업의 발달에 따른 도시의 번성과 중산층의 형성이다. 이러한 현상은 피렌체, 베네치아, 만토바, 파르마, 비첸차 등 이탈리아 중북부 도시들에서 일찍 나타났다. 상공업과 금융업이 발달한 피렌체와 전통적인 무역도시 베네치아는 르네상스기의 극장문화를 선도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제해권을 장악한 영국의 런던에서도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자유로운 극장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다. 상업도시 베네치아, 런던 등에서의 민간 상업극장의 발생은 극장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둘째, 다양성의 회복과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의 형성이다. 중세 기독교 사회의 획일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난 시민들은 내세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인생만이 아니라 현세에 충실하려는 인생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획득한 소재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큰 변화를 만들었다. 이교도의 신화인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일반 시민의 삶 등 다양한 소재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미술에서의 누드 표현이나 무대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등이 가능하게 되면서 미술과 연극의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셋째, 고전 문헌의 유입이다. 중세의 신본주의로부터 르네상스의 인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그들이 본받을 모델을 찾아 고대 로마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십자군 전쟁으로 급격히 쇠락한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이탈한 학자들이 고대의 자료와 함께 조금씩 서유럽으로 유입되다가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함락 이후 급격히 피렌체와 베네치아로 흘러 들어왔다. 고대 그리스의 문헌들을 열광적으로 수집하던 메디치 가문이 통치한 피렌체에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쇄술의 도입에 힘입어 고대 그리스 로마의 희곡들과 연극 이론서들이 출판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르네상스 극장은 1584년에 완공된 이탈리아 북부 도시 비첸차의 떼아트로 올림피코(Theatro Olimpico)이다. 이 극장은 고대 그리스 비극을 연구하기 위해 1550년에 발족된 일종의 동호회와 같은, 올림픽 아카데미(Accademia Olimpica)의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건축되었다. 지역 유력자들과 학자들을 회원으로 둔 그 모임에서, 문헌으로만 존재하는 고전극을 연구하고 낭독하다가 실제 공연을 올려보기 위해 극장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모임 멤버인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설계한 이 극장은 고대 로마 극장을 실내에 구현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개관 기념 공연으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올렸다. 4년 후 1588년에는 인근 소도시 사비오네타에 그리스 희극 공연을 위한 떼아트로 올림피코 사비오네타(Theatro Olimpico Sabbioneta)가 건립되었으며 이 극장 역시 아직까지 남아있다.

프로시니엄 아치의 발명은 극장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무대를 정면에서 감싸고 있는 이 액자들은 1586년 피렌체의 우피치(Uffizi) 궁정 극장에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18세기에 철거되어 지금은 자료로만 남아있다. 현존하는 최고의 프로시니엄 극장은 1618년 이탈리아 북부도시 파르마에 건축된 떼아트로 파르네제(Theatro Farnese)이다(그림5 참조). 이후 이탈리아인 프로시니엄 극장은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극장 건축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탈리안 르네상스의 또 하나의 발명품은 오페라이다. 1573년 피렌체

그림 5. 떼아트르 파르네제 (Theatro Farnese, Parma, Italy)



에서 일군의 인문주의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만든 ‘바르디의 방’(Camerata de’Bardi)이라는 이름의 연구모임에서는 고대 그리스 연극을 재현하려는 연구 끝에 드라마에 음악을 가미한 공연을 만들고 그것을 ‘음악 속의 작품 (opera in musica)’이라고 불렀다. 오페라 <다프네>가 1598년 피렌체에서 공연된 후 1607년에는 또 다른 오페라 <오르페오>가 만토바에서 공연되었다. 이 매력적인 예술은 다른 도시들로 급속히 전파되었다. 오페라는 새로운 대중예술이 되었다. 베네치아에서는 1637년 최초의 대중 오페라극장 산 카시아노(San Cassiano)가 건립되었으며 그로부터 60년 후 이 도시에는 17개의 오

페라극장들이 경쟁적으로 운영되었다. 오페라는 프로시니엄 극장과 함께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민간 상업극장의 탄생은 획기적인 공연사적 사건이었다. 오늘날 세계 공연계를 대표하는 런던 웨스트엔드와 뉴욕 브로드웨이의 거의 모든 극장들은 영리적 목적을 위해 민간자본으로 건축한 상업극장들이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중상주의의 결과로 런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몇몇 극단들이 런던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광장, 여관마당 등에서 공연하던 유랑극단들은 투자자를 모으고 영구적인 극장을 짓기 시작했다. 대형 야외 대중극장(public theatre)과 소형 실내 개인극장(private theatre)들이 건축되었다.<sup>5)</sup> 그 극장들은 마당에 임시 무대를 설치한 여관 건물을 영구극장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원형 혹은 사각 건물의 중앙마당에 돌출된 무대와 그를 둘러싼 다층의 객석으로 이루어진 중정극장(courtyard theatre)들이다. 1997년 복원한 셰익스피어의 글로브(Shakespeare's Globe) 극장에서 옛 형태를 볼 수 있다. 1567년부터 약 60년간 13개의 대중극장들과 9개의 개인극장들이

---

5) 개인극장(private theatre)이란 분류는 당시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실제로는 대중극장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일반관객을 수용하였다. 입장료는 대중극장보다 비쌌다. 야외 대중극장의 규모는 최대 3,000명까지 수용하였으며 개인극장은 1/4 정도의 규모였다.



## ■ 조선에는 왜 극장이 없었는가?

지금까지 서구 극장의 흥망성쇠와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질문해 본다. 조선에는 왜 극장이 없었을까? 비슷한 시기의 중국과 일본에는 물론 아시아 각지에도 극장이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유럽에서 조차 르네상스 극장문화가 나타나기 전이었으므로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조선 후기에까지 극장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극장 건립 주체의 의지와 사회적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첫째,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진 조선의 지배층은 극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공공 극장을 건립하지 않았다. 조선을 지배한 성리학자들은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잡학’이라 하여 멸시하였고 성리학 내에서도 ‘주자의 해석서 이외의 학설은 사문난적’이라 하여 배격하였다. 성리학적 도덕국가는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그랬듯이 극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확일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중세 유럽에서 ‘연극은 관객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유발

하는 위협한 것'이라는 플라톤의 주장이 수용되고, '연극은 영혼의 조화를 회복시키는 유용한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배격되었던 것처럼 조선에서도 극장은 논의 혹은 상상외의 개념이었다. 극장 건립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초기 극장들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공공의 비용으로 건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문묘제례, 종묘제례, 진찬연, 명나라 사신 접대 등 성리학적 필요에 의한 일시적 공연행위만 지배층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것들은 극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둘째, 상공업 발달의 지체로 안정적 공연수요층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므로 영리적 목적의 극장을 건립할 민간 사업자가 나타날 수 없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르네상스 시기의 상공업과 금융업의 발달은 도시에 인구를 집중시키고 새롭게 떠오른 도시 중산층은 안정적인 관객층을 형성하였다. 안정적인 규모의 수요층이 확보되면서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진 유랑극단들은 한 도시에 정착하여 극장을 건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신을 중시하고 물질을 경시하는 성리학의 조선에서는 사농공상의 위계질서 속에서 상공업이 천시되었고, 실물 수취제도와 물물교환 경제가 대중을 이루면서 화폐경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여 상업도시와 중산층이 형성되기 어려웠다. 당시의 중산층, 즉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전통 양반계층은 그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태생적으로 '천한 광대놀음'의 관객이 될 수 없는 사대

부들이었다. 또한 돈으로 공명첩을 구입한 신흥 양반계층도 공연의 수요층이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연 공급자로서의 유랑예인 집단의 경우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도로교통이 미비하여 영구 극장은커녕 이동식 극장조차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창작자로서의 광대는 천민 신분 때문에 교육이 부족하여 양질의 대본을 창작하기 어려웠고, 체면 손상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이 되지 않는 분야에 창작자로 뛰어들 양반도 없었다.

셋째, 통치자 혹은 부유층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극장 건립 시도가 없었다. 유럽의 경우 르네상스 이래의 초기 극장들은 통치자(혹은 귀족부호)가 개인적 목적을 위해 궁정(혹은 저택) 내에 건립한 것들이었다. 조선 왕실에서도 궁정 내의 진찬연을 위해 일시적인 무대를 설치하였지만 행사 종료와 함께 철거되었다. 회갑이나 생일을 맞은 주인공과 순서대로 인사하러 오는 소수의 축하객이 주 관객이었고 그(그녀)가 원래 있던 방 안에서 공연을 잘 시청할 수 있도록 마당에 단을 높이고 칸막이와 차일을 치는 것이 무대였으며 객석이 따로 설치되지는 않았다. 그나마 극장에 가까운 건축물은 경회루였으나 공연이 아닌 연회가 건축 목적이었으므로 극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양반부호의 잔치에서도 유랑예인들을 불러 마당에서 여흥을 즐겼으나 궁중 진찬연의 축소판에 불과하였으므로 극장으로 발전될 수 없었다. 한편 청나라 황실은 북경의 자금성, 이화원 등 궁정 내에 크고 작은 극장들을 건립하였으며 일

부 귀족 부호들도 개인 저택 내에 극장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의 화이론에 의거하여 청나라를 오랑캐로, 서양을 금수로 여겼던 조선에서는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지금까지 살펴본 극장 성쇠의 이유를 요약하자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극장이 발달하고 획일성이 지배하는 원리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 신화는 자유 시민들의 이성과 만나서 그리스 연극을 낳았고 로마의 개방적인 분위기는 현세적 욕구와 만나 다양한 공연 장르를 만들었다. 천년의 공백기 이후 인본주의가 부활한 사회에서는 시민 개인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극장을 짓고 시민들의 스토리로 공연을 만들었으며 시민 관객들은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반면 중세 유럽의 획일적인 사회에서는 극장 문화가 생겨나기조차 어려웠으며 근대의 일부 획일적 사회에서 생산한 극장문화는 체제선전과 내부결속의 용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리주의적 조선 사회에서는 극장이라는 개념조차 가지지 못했다가, 경제가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르러서는 극장 문화가 폭발적으로 꽃피고 있다. 개인의 가능성이 존중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이다. 인간은 모두 다르다.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극장은 그 다양성의 산물이다.

###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컨신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세균의 환경 적응을 연구해온 분자미생물학자이며,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초대 위원장, 기초연구학회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 박동우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교수. 무대디자이너와 극장건축 컨설턴트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무대디자인을 전공하였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뮤지컬 <영웅>, <명성황후> 등 400편 이상의 공연을 디자인하였으며 <2018년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의 스타디움을 디자인하고 예술감독을 맡은 바 있다.

## Diversitas List

-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중훈
-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슬기
-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판은 불변법칙인가, 가변법칙인가? \_ 서명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범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다양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Diversitas PDF 버전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diversity.korea.ac.kr/diversity/research/booklet.do>



## Diversitas

**권호** 10호  
**발행일** 2021년 3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